

2019년 1월 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애플 급락과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 12월 ISM 제조업 PMI 59.3 → 54.1 로 발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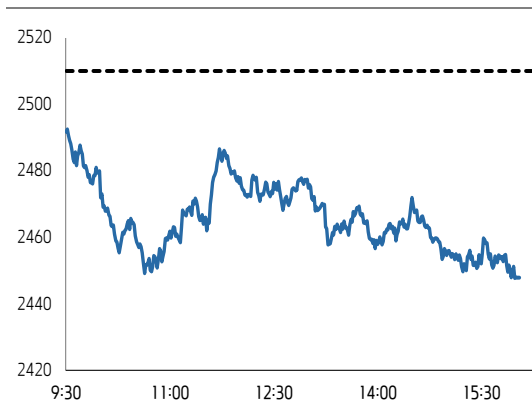
미 증시는 애플(-9.96%) 실적 가이드스 하향 조정과 경기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며 하락. 특히 장중 소형 기치주 위주로 낙폭 축소를 모색하기도 했으나, 트럼프와 민주당의 마찰이 격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재차 하락폭을 확대하며 마감(다우 -2.83%, 나스닥 -3.04%, S&P500 -2.48%, 러셀 2000 -1.85%)

팀 쿡 애플 CEO가 애플의 실적 가이드스를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 특히 중화권 매출이 중국 경기 둔화 여파로 축소 될 것이라고 언급 하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을 자극. 지난 11월 팀 쿡은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신흥 시장의 성장 둔화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 했었음.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가이드스 하향 조정은 전혀 놀라운 것은 아님. 그러나 당시 중국은 그 범주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중국 성장 둔화를 언급한 점이 투자심리를 위축. 결국 애플의 실적 가이드스 하향 조정이 경기 둔화 이슈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런 가운데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PMI가 전월(59.3)은 물론 예상치(57.9)를 크게 하회한 54.1로 발표되자 경기 둔화 이슈가 더욱 확대되며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 ISM은 세부 항목에 대해 신규수주(62.1→51.1)는 물론 생산지수(60.6→54.3)도 위축되며 향후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

최근 중국에 이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자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피해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높아짐. 그러나 애틀란타 연은이 GDPNow를 통해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2.6%로 발표하는 등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 둔화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 중국 또한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했듯 본격적인 경기 부양정책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중국발 경기 둔화 이슈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1,993.70	-0.81	홍콩恒生	25,064.36	-0.26
KOSDAQ	657.02	-1.85	영국	6,692.66	-0.62
DOW	22,686.22	-2.83	독일	10,416.66	-1.55
NASDAQ	6,463.50	-3.04	프랑스	4,611.49	-1.66
S&P 500	2,447.89	-2.48	스페인	8,523.30	-0.31
상하이종합	2,464.36	-0.04	그리스	607.05	+0.28
일본	20,014.77	휴장	이탈리아	18,218.40	-0.6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및 부품업종 급락

애플(-9.96%)은 실적 가이드스 하향 조정 여파로 급락했다. 지분이 많은 버크셔-헤서웨이(-5.49%)도 동반 하락 했다. 한편, 애플 매출 둔화 여파로 큐로브(-9.06%), 스카이웍(-10.65%), 브로드컴(-8.90%), 시러스 로직(-8.49%), 아나로그디바이스(-6.04%) 등 부품주는 물론 마이크론(-5.34%), 인텔(-5.50%), AMAT(-5.79%), TI(-5.90%), AMD(-9.48%), NVIDIA(-6.04%) 등 반도체 관련 업종도 동반 하락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은 반도체 산업협회가 11월 반도체 매출이 9개월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 했다고 발표하자 낙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애플의 팀 쿡 CEO는 물론 반도체 산업협회가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로 매출 감소를 언급하자 중국 매출이 많은 캐터필라(-3.85%), 보잉(-3.99%), 3M(-3.77%)등도 하락했다. 한편, 델타항공(-8.94%)도 실적 가이드스를 하향 조정하자 급락 했다. 아메리칸항공(-7.45%) 등도 동반 하락 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12.28%)는 바이오 업체인 셀진(+20.69%)을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급락 했다. 바이오젠(+0.76%), 길리어드사이언스(+2.85%) 등 바이오 업종은 상승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70%	대형 가치주 ETF	-2.36%
에너지섹터 ETF	+0.84%	중형 가치주 ETF	-1.14%
소매업체 ETF	-1.32%	소형 가치주 ETF	-1.13%
금융섹터 ETF	-2.25%	배당주 ETF	-0.35%
기술섹터 ETF	-5.05%	변동성 ETF	+4.73%
소셜 미디어업체 ETF	-2.57%	대형 성장주 ETF	-3.04%
인터넷업체 ETF	-2.89%	중형 성장주 ETF	-2.55%
리츠업체 ETF	+0.50%	소형 성장주 ETF	-2.53%
주택건설업체 ETF	-1.22%	신중국 고배당 ETF	-1.14%
바이오섹터 ETF	+0.14%	신중국 저변동성 ETF	-1.06%
헬스케어 ETF	-2.03%	하이일드 ETF	+0.03%
곡물 ETF	+0.35%	물가연동채 ETF	+0.58%
반도체 ETF	-6.01%	Long/short ETF	+0.5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8.07	-1.10%	+1.14%	-13.96%
소재	309.26	-2.76%	-0.33%	-10.89%
산업재	528.50	-2.96%	-0.63%	-14.06%
경기소비재	771.54	-2.18%	+0.34%	-11.57%
필수소비재	515.90	-0.73%	+0.21%	-10.42%
헬스케어	965.75	-2.22%	-1.11%	-12.33%
금융	389.74	-2.28%	+0.52%	-13.24%
IT	1,033.85	-5.07%	-3.60%	-14.91%
커뮤니케이션	138.48	-1.45%	+0.41%	-7.67%
유틸리티	264.07	+0.08%	-0.65%	-6.75%
부동산	188.90	+0.49%	-1.32%	-9.8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서비스업지수 주목

MSCI 한국 증시는 2.15% MSCI 신흥 지수도 1.79%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622 계약)에도 불구하고 0.65pt 하락한 255.9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5.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애플 여파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며 하락 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이나 전일 이미 반영이 되었던 점을 감안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애플 이슈와 11 월 반도체 매출이 9 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는 반도체 산업협회(SIA)의 발표 여파로 5.94% 하락했으나, 이 또한 전일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애플 실적 문제 및 중국, 미국의 제조업지표 둔화의 근본적인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 발효라는 점을 감안 우려감이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된다. 지난 12 월 29 일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통화를 통해 무역분쟁 해결 의지를 표명 하는 등 1 월 7 일부터 시작되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시작 오전 10 시 45 분에는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PMI 가 발표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전월(53.8) 보다 둔화된 52.9 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1 일 중국 통계국은 서비스업 PMI 에 대해 전월(53.4) 보다 개선된 53.8 로 발표했던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다. 개선된 중국의 서비스업지수가 발표된다면 경기 둔화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표 둔화

12 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59.3)은 물론 시장 전망치(57.9)를 크게 하회한 54.1 로 발표 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62.1→51.1), 생산지수(60.6→54.3), 가격지수(60.7→54.9)가 크게 하락 했다.

ADP 는 12 월 고용보고서를 통해 비농업고용자수가 전월(15.7 만건) 보다 크게 증가한 27.1 만 건으로 발표했다.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 개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OPEC 생산량 감소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특히 전일 사우디아라비아가 12월 원유 수출이 하루 평균 5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리비아가 하루 평균 11만 배럴 감산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점이 주요 상승 요인이었다. 한편, 사우디의 아람코는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 판매하는 원유가격을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 한 점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ISM 제조업지수 둔화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가 연준의 연초 금리인상을 반대한다고 주장한 점도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엔화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속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노르웨이 크로네와 캐나다 달러 등 상품시장과 관련된 국가의 환율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이었다.

국채금리는 제조업지표 둔화 여파로 하락했다. 더불어 매파 성향의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가 “연준은 주변을 살펴봐야 되며 연초부터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ADP가 민간고용자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유입되며 상승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82%, 철근도 0.70%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7.09	+1.18	+1.88	Dollar Index	96.235	-0.60	-0.25
브렌트유	55.95	+1.89	+2.17	EUR/USD	1.1399	+0.48	-0.27
금	1,294.80	+0.83	+1.71	USD/JPY	107.5	-1.27	-3.16
은	15.797	+0.95	+4.46	GBP/USD	1.2638	+0.25	-0.05
알루미늄	1,835.00	+2.11	-3.06	USD/CHF	0.987	-0.31	-0.10
전기동	5,736.00	-1.81	-3.69	AUD/USD	0.7004	+0.27	-0.41
아연	2,379.00	-1.29	-3.84	USD/CAD	1.3480	-0.73	-1.02
옥수수	379.75	+1.06	+1.74	USD/BRL	3.7594	-0.72	-4.27
밀	513.75	+1.38	+0.74	USD/CNH	6.8792	+0.01	+0.07
대두	912.75	+0.63	+3.37	USD/KRW	1127.70	+0.78	+0.22
커피	102.15	+2.66	-1.68	USD/KRW NDF1M	1124.90	+0.41	+0.49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562	-5.82	-20.44	스페인	1.426	+2.70	+4.40
한국	1.962	+1.20	-2.80	포르투갈	1.762	+5.50	+8.50
일본	0.003	0.00	-2.30	그리스	4.388	+2.00	+2.30
독일	0.153	-1.20	-7.80	이탈리아	2.858	+16.80	+11.40